

# 국내 행정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관한 분석\*

## Analysis of Research Behavior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배 순 자(Soon-Ja Bae)\*\*

### 목 차

- |                        |                       |
|------------------------|-----------------------|
| 1. 서론                  | 3. 2. 1 연구수행의 유형      |
| 2. 행정학 분야의 계량서지학적 접근   | 3. 2. 2 연구수행의 주제별 유형  |
| 2. 1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       | 3. 2. 3 연구수행을 위한 참고   |
| 2. 2 계량서지학의 의의와 국내 행정  | 자료의 분석                |
| 학 분야에의 적용 검토           | 3. 2. 4 핵심 학술지의 순위 분석 |
| 3.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 | 3. 2. 5 행정학 분야 학술자료의  |
| 행 분석                   | 반감기 측정                |
| 3. 1 조사진행              | 4. 결론                 |
| 3. 2 조사결과              |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들간에 나타나는 연구수행의 경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의 학문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행정학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를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하여, 연구수행에 관련된 유형과 연구용 참고자료의 유형 및 핵심 학술지와 학술자료의 반감기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행정학 연구는 중진의 교수 및 연구원들의 단독연구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며 가장 선호하는 참고자료는 해외발행의 학술지이나 상위 학술지간의 점유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학술지는 강한 점유도에 의해 상위 학술지의 구별이 뚜렷하며 반감기는 3.26년으로서, 반감기가 10년이 넘는 해외자료에 비해 훨씬 최신의 자료가 요구된다.

### ABSTRACTS

This study is to examine academic phenomena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field in Korea through analysing the trends of researcher behavio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analysed the types of research performance, reference materials, core journals, and the half-life of reference materials by investigating the articles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which is one of the major journal in this discipline. The results I found out are the followings: most of researche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re performed individually by the established academic fellows; researchers show their preference to foreign journals; as for the case of domestic journals, researchers tend to refer the latest issue; the major journal is discriminated from the others by getting a higher points

키워드: 행정학연구자, 연구행태, 연구수행, 핵심학술지, 자료반감기, 계량서지학

\* 1999년도 교내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sjlbae@hanmail.net)  
접수일자 2001년 2월 18일

## 1. 서론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간에 나타나는 연구수행의 경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행정학 분야의 학문적 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각 분야별의 학문적 현상에 대한 규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학문 현장에서의 추세를 재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일회성 연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계속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체계적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의 중심 학문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대부분의 학문들은 그들 학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학문적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규명을 전제로 하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출발된 것으로,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상경계열과는 달리 사회계열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행태를 고찰한 예가 없으므로 우선 이 분야에서 학제성이 강한 행정학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려는 국내 행정학의 학문적 현상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중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선 연구수행의 유형, 연구수행의 주체별 유형, 연구용 참고자료의 유형, 핵심학술지의 순위, 학술자료의 반감기 등이 분석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갖는 학술정보와 관련된 연구자료의 이용경향을 고찰하기 위해 계량서지학적 접근

으로 시도될 것이다. 분석대상의 주제문헌은 「한국행정학보」인데, 이 학술지는 행정학분야의 대표 학술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학제성이 강한 행정학 분야의 종합 학술지이기도 하다.

올바른 학문활동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학자들간의 학술정보 교류가 포함된다. 응용과학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행정학 분야에서는 특히 새로운 학술정보가 중시되며 이러한 학문적 특성에서는 학술지가 학술정보의 매체로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학술지라고 판단하고 그 분석대상의 대표 학술지로 「한국행정학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의 연구에서 판명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 수명감소 현상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원문헌 분석과 인용문헌 분석에 의해 연구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 2. 행정학 분야의 계량서지학적 접근

### 2.1 행정학의 학문적 특성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행정이란 사회공동생활에 있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행위로서, 사회에 있어서의 공공적 경영을 말한다(대세계백과사전, 1986). 그러므로 행정학의 본질 속에는 사적경영으로서가 아닌, 국가이거나 혹은 사회집단이라는 대상을 겨냥하는

공공성이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학 연구자들은 주어진 여건과 그 시대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적 과제를 갖게 된다.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 미국에서 성립된 현대 행정학은 능률성과 민주성의 중시여하와 행정과 정치의 관계여하를 중심으로 크게 2단계를 거쳐 발달하여 왔다(최창호, 2000). 따라서 초기에는 능률행정론이, 그 이후에는 기능행정론이 지배적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고객 지향적 행정구현을 주장하는 시민행정학이 등장하게 되었다(최창호). 이와 같이 행정학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행정학에 대한 접근방법 또한 변천되기를 요구하여 행정학의 연구에는 학제적 연구를 통한 종합 학문적인 특성을 실현할 것과 아울러 이론과 실제의 교환성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정철현, 1998).

행정학 연구를 위한 접근에는 시기와 주제에 따른 접근법과 이론적 접근법으로 크게 구분된다(정철현). 시기와 주제에 따른 접근법에는 행정학의 발전과 변천을 연구하는 역사적 접근법과 행정과 정치, 사실과 가치, 과학과 기술, 합리성 등 행정의 주제와 관련된 주제별 접근법 및 각 시기를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방법이 있다. 한편 이론적 접근법은 행정학 발전에 기여한 무수한 이론과 사상들을 주제로 한 고전적 접근법, 행태적 접근법, 정치적 접근법, 실천적 접근법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행정학 연구는 패러다임의 변천과 다양한 접근방법의 발전이 있어 왔으나 행정학의 종합성과 실천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의 광범성과 행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적인 경험

연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 연구는 응용 실천적인 사회과학의 특성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는데, 이는 20세기 이후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의 등장 이후 행정학의 연구대상은 그만큼 광범해지고 행정학의 접근방법이 실천적 접근법으로 발전되면서 이다(Waldo, D., 1978).

이런 특성을 갖는 행정학의 연구에는 광범한 자료와 정보를 필요로 하며 특히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통해 행정문제의 해결 처방을 찾으려는 경험적 조사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행정학의 연구에서도 한국행정학의 사회적 適實性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신무섭, 1977).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학의 논의에서는 사회집단이라는 적용대상과 공공성이라는 기능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국내의 행정학 연구현장으로부터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면, 適實性의 부족, 토착화의 미흡, 한국행정현상의 특이성에 대한 연구 부족,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성의 심각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신무섭 재인용).

## 2. 2 계량서지학의 의의와 국내 행정학 분야에의 적용 검토

과학에서의 필연적 조건으로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법칙과 객관성에 의한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근대 정신이 과학과 결합되는 주요 동기에는 학문의 계량적, 수리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오늘날 모든 학문 분야에서는 계량적 접근을 통해서 보다 더 조

화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계량적 인식방법은 인간의 과학적 사고로부터 발생되어 과학적 태도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서 최근 각 학문 분야별로 새로운 인식방법의 하나로 주시되고 있는 보다 계량된 사고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방법은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수량적 접근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출발된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 중 먼저의 하나에는 지식을 습득하려는 주체가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체험교육이 있다. 이는 先行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수행되는 것으로 이후 관련 주제에서 하나의 이론적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의 학술적 절차가 수 차례 요구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론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소위 '학문'이 있다. 그리고 이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론을 토대로 한 설명과 예측을 하는 것이며 이의 주체가 곧 연구자들이다. 즉 학문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이를 연구자들간에 유통시킴으로써 계속 변화와 성장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선행의 지식을 찾으며 관찰과 분석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습득하고자 하는 지식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곧 학문의 특성에 따른 연구방법의 차이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적인 차이를 계량적으로 접근하여 각 학문분야

별로 그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 계량서지학이다.

각 학문분야별로 연구의 영역 및 경향을 규명하기 위해 적용되는 여러 방법 중 계량서지학은 수행된 연구결과물을 통한 경험적 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임을 확인한 관련 연구자들은 이후 이의 적용영역을 특정 학문의 지식사 및 지식구조를 규명하는 데까지 확장시키게 되었다.

주제문헌의 계량적 접근에 의해 해당 주제의 학문적 경향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자들간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및 지적구조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1960년도 이후부터 국내·외적으로 부쩍 증가되어 진행된 바 있다. 이 중 국내에서는 경영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이후 물리학, 국어학, 농학, 의학, 통계학 등 각 학문분야별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중요하게는 ISI(International Scientific Institute)에서 각 분야의 인용색인을 발행하면서부터 계량서지학의 실무적 응용성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현재 남발되고 있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핵심학술지 및 우수학술지의 평가에 큰 유용성을 갖고 있다.

최근 계량서지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의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각 주제별로 연구경향이나 핵심학술지를 평가한 연구가 여러 주제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들 연구 중 국내 행정학분야를 대상으로 특히 연구경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권경득, 1996; 신무섭, 1997)가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해당 주제의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이 두 연구는 모두 행정학 분야의 국내 대표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가 창간된 1967년부터 1995년까지 30년간 게재된 논문을 조사하여 행정학의 연구가

변화되어 온 경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해 내었다.

이 두 논문은 모두 동일한 대상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이 중 권경득의 논문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한국 행정학의 연구경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1996년 「한국행정학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한편 신무섭의 논문은 동일한 논문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되 기존의 학자들로부터 반복해서 제기되는 한국행정학의 문제점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의 경향과 연구의 과제를 분석하여 1997년에 대학논문집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행정학 분야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나 국내의 학술지를 인용분석하여 행정학을 포함한 국내의 각 학문 분야를 비교하여 학문의 특성 및 과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평가한 연구(이가중, 윤석경, 1996)가 역시 행정학 전문 연구가들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배순자, 1999)와 국내 연구자들의 국내 학술지에 대한 의존도를 계열별로 비교분석한 연구(배순자, 1998)에서는 사회과학의 대표 주제로 선정된 행정학의 관련 학술지 중 「한국행정학보」가 가장 우수한 학술지로 평가된 결과를 보였다.

### 3. 국내 행정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분석

#### 3.1 조사진행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수

행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되는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행정학보」를 조사대상 자료로 삼았다. 학술지를 분석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자들간의 학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술지가 매우 유용한 자료임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행의 연구(최은주, 1998)에서 판명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 수명감소 현상이 최소 5년간임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1995년 봄호-1999년 겨울호) 발행된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5년간 기간으로 발행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334편이었다. 이 중 1편은 행정학 분야의 특정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내용으로 포함된 행정학 핵심 학술지의 순위에 오류결과를 줄 것임으로 인용문헌조사에서는 제외시켰다.

총 33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각 논문의 원문헌과 인용문헌을 조사하여 원문헌에서는 저자에 관련된 사항을, 인용문헌에서는 행정학 연구자들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였다. 원문헌을 통해 조사되는 저자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연구수행의 유형과 연구수행의 주체별 유형 등이다.

한편 인용문헌의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연구용 참고자료의 유형과 그 활용순위, 핵심학술지의 활용도 순위, 학술자료의 반감기 등을 분석하였다.

### 3. 2 조사 결과

#### 3. 2. 1 연구수행의 유형

원문헌조사에서 밝혀진 저자에 관련된 사항의 첫 내용으로서는 국내 행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어떠한 유형으로 수행되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행정학의 대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이 1인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가 또는 2인 이상의 연구자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연구수행의 유형으로 삼았다.

연구하는 방법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어, 인문과학의 연구는 주로 단독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반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대체로 공동연구의 경향이 있다. 실제 학문의 특성 상 이들 학문의 연구현장에서도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공동연구에 관심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질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학은 학제성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더욱 향상된 연구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행정학 연구현장에서의 연구유형에 대한 경향을 알기 위한 조사 결과, 기대와는 달리 단독연구의 경향이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논문

334편 중 단독으로 수행된 연구가 총 257편(77.5%)인 것에 비해 2인 이상의 공동연구로 수행된 논문이 총 76편(22.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공동연구로 진행된 논문 76편을 대상으로 참여한 연구자수별로 보게 되면, 2인 공동연구가 51편으로 가장 많으며 공동 연구자가 최대 5인까지 참여한 연구는 3편 포함되어 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진행은 학문적으로 요청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단독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동일 사회과학 분야의 상경계열에서 수행되는 연구수행 경향을 보면<sup>1)</sup>, 다소 학제성이 강한 MIS 분야나 정보학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의 경향이 각각 57%와 46% 선으로 나타났다.

#### 3. 2. 2 연구수행의 주체별 유형

원문헌을 통해 조사되는 두 번째의 사항으로는 국내 행정학 연구의 연구주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되는 각 논문의 저자확인주를 참고하였으며 저자확인주에 구체적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저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행된 「대학연감」을 참고하였다. 「한국행정학보」에서는 1996년부터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저자확인주를 통하여 다소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소개되고

〈표 1〉 공동연구의 참여 연구자수 비교

유형	공동연구	2인 공동	3인 공동	4인 공동	5인 공동
편수	총 76편	51편	17편	5편	3편
(%)	(100)	(66.7)	(22.2)	(6.7)	(6.0)

1) 서은경, 한인구, 1998. "회계학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회계학연구」 23(3): 183-207 참조.

있어 1996년도 이후의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를 통해 충분한 저자사항을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논문 334편 중 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의해 수행된 76편의 논문을 위한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저자 수는 총 448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자사항의 조사내용으로는 먼저 직업별 구분하고<표 2 참조>, 그 아래에서의 직급별 내용이 어떠한가를 조사하였다<표 3 참조>. 다음으로는 직업별 구분 없이 최종학위 및 학위취득의 국가별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저자사항은 논문게재 당시의 상황을 말한다.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수행에 있어 그 주체의 유형을 직업별로 구분해 본 결과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직과 각종 연구소 의 연구원 및 일반행정직이 포함되었다. 이 중 교수직이 절대적인 높은 비율에 의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를 비롯하여 국책연구소 및 일반 기업체 소속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위원들이었다. 일반적으로 구분된 직

업 중에는 모두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었으며 일정한 근무처에 소속되지 않고 대학원생 신분으로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은 학생으로 분류시켰다. 학생으로 구분된 저자 중에는 학부생이 공동저자로서 1명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행정학은 실천성이 강한 사회과학의 중심학문이기 때문에 게재논문은 실무현장에 관련되는 논문으로서, 현장 실무자들이 연구수행의 주체로서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조사결과 연구의 수행자 대부분은 연구자들로 분류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가 학회지인 관계로 대부분 이론 중심의 논문이 게재되는 학회지의 특성인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의 유형별 구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직을 다시 직급별로 알아본 결과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학의 학술분야 연구는 대학교수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며 특히 조교수를 중심으로 부교수와 정교수를 포함한 중진급 수준에서 활발한 연구논문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들의 논문발행 행태를 연도별로도

<표 2> 저자의 직업별 구분

직업구분	교수직	연구원	일반직	학생	계
저자 수	343	86	4	15	448 명
비율	76.45	19.28	0.09	3.37	100 %

<표 3> 교수직의 직급별 분포

직급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계
저자 수	89	86	114	38	16	343 명
백분율	26.0	24.9	33.1	11.2	4.8	100 %

\* 교수직급에는 정교수 및 명예교수와 연구교수도 포함이 되었다.

알아본 결과에서는 별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없었으며 대체로 각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의 직급별 수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연구위원으로 분류된 저자들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조사해본 결과에서도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책임연구위원 이상의 중진 연구위원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수의 비율은 전체 연구위원의 약 43%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행정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위한 핵심 저자군은 직업별로는 연구직이며 직급별로는 교수와 연구원 모두 중진의 연구자들임을 알 수 있다.

연구수행의 주체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각 저자의 최종학위를 직업과는 상관없이 조사해본 결과, 총 저자 448명 중 약 83%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학위에서 박사학위의 취득 상황을 국내외별로 보면 해외에서 취득한 경우가 국내에서 취득한 경우보다 약 16%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해외 취득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미국의 대학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그 외 학위의 경우, 즉 석사학위 취득이나 박사과정 수료 또는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연구자들은 대개 국내의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다(〈표 4〉의 저자 수에서 국내외의 비율을 참조).

### 3. 2. 3 연구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진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행정학보」에 5년간 수록된 논문 총 334편을 대상으로 원문헌조사와 인용문헌조사를 병행한 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원문헌조사를 통해서 연구수행의 주체에 관련된 사항을, 인용문헌조사를 통해서 연구수행과 관련된 행태적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의 성격상 원문헌조사에서는 334편의 논문 전수가 포함되었으나 인용문헌조사에서는 1편이 제외된 총 333편의 논문이 그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에 제외가 된 논문(이가중, 윤석경, 1996)은 특정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인 인용문헌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용문헌의 조사에서는 각 논문을 생산하는데에 참고 또는 인용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를 계수하는 인용분석법<sup>2)</sup>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그들의

〈표 4〉 저자의 최종학위별 분포

학위구분	박사학위		박사과정수료		과정이수중		석사학위		학사학위	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저자 수 (%)	153 (42)	202 (58)	37 (74)	13 (26)	24 (82)	5 (18)	12 (92)	1 (8)	1	448 명
백분율	79.6		11.1		6.5		2.7		0.2	100 %

2) 학술지의 인용분석법은 학술연구의 동향이나 연구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학술지의 우수성 평가를 위해서도 좋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영역에서도 논평이 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 이가중, 윤석경, 1996. "학술지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0(2): 97-112를 참조.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연구적 행태와 연구용 핵심자료를 알아보았다. 먼저 참고자료의 분석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①한 편의 기사논문이 생산되는 데에 평균 몇 편의 자료가 참고되는가, ②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연구용 자료의 유형별 구성은 어떠한가, ③각 자료에 대한 국내외 의존도 정도는 어떠한가 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각 분야별 연구자들에게 가장 활용성이 높은 연구자료로 논증<sup>3)</sup>되고 있는 학술지<sup>4)</sup>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④행정학 분야의 핵심학술지는 국내·외별로 어떤 순위로 구성되고 있는가, ⑤국내 행정학 분야의 학술자료가 갖는 반감기는 어느 수준인가 등을 포함시켰다.

1) 기사논문 한 편 당 평균 참고자료의 수

모든 연구(re-search)에는 이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조사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학술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의 연구를 참고해야 함은 연구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자적 자세로 취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진행에 얼마나 많은 선행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가를 알고자 하였으며, 조사결과 다소 많은 수의 참고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333편의 전 논문에 참고된 자료는 인터뷰자료를 제외하고 총 10,591건으로써, 1편의 논문을 생산하는 데에는 평균 31.0건의 자

료가 참고된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사회과학 분야의 상경계열 논문에서 나타나는 참고자료의 이용경향과 비교하면 다소 많은 수의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상경계열의 연구에서 하나의 기사논문을 생산하는 데에 참고하는 자료 수를 보면, 회계학과 경영학에서 각각 평균 29건과 27건의 문헌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은경, 한인구, 1998).

2) 참고자료의 유형별 선호

각 학문의 영역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참고하는 자료는 그 유형면에서 본다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학문하는 방법과 학문의 내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특히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하다. 즉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중히 여기며 과거의 오래된 자료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연구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문과학에서는 결코 최신의 자료가 가장 중한 연구자료로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최신의 사실이나 현상 또는 그 변화의 과정으로부터 학문의 내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최신의 자료가 귀중한 학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인문과학 연구자들은 자료의 생산에 시간적 요소가 덜 작용하게 되는 단행본을 통해 오히려 유용한 학술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연구

3) 관련되는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과학을 비롯하여 모든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학술정보는 학술지로부터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논증되고 있다.  
4) 학술지란 각종 정보자료의 유형별 구분의 하나로서 "과학자들 사이에 학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기간행물"로 정의된다.

자들은 정보전달에 다소 신속성이 유지되는 정기간행물이나 보고서류를 통해 더 유용한 학술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문의 영역과 이용하는 참고자료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상호적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행정학 연구에 참고되는 선호자료를 유형별로 알아보려 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행정학 연구자들이 그들의 학술적인 기사논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자료 중 학술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단행본과 보고서자료가 각각 그들의 연구에 참고되고 있다.

〈표 5〉는 조사된 5년간의 결과를 각 연도별, 자료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다. 인용자료의 전 내용을 연도별과 자료유형별로 각각 그 인용횟수와 비율에 의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논문이 생산되는 데에 참고된 인터뷰자료는 조사의 항목 수에서 제외되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각 학문분야

별로 선행된 연구들로부터 입증되는 주요 학술정보자료는 대체로 학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 국내의 행정학 분야에서 선호되는 학술정보의 습득은 단행본보다 학술지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사회과학의 연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전제사항으로 요구되는 학문적 특성을 보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쉽게 인정되는 바라 하겠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행된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정보교환을 다룬 연구로서 초기의 대표적 연구결과<sup>5)</sup>를 보더라도 사회과학자들은 잡지를 가장 선호하는 참고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20년 뒤에 수행된 연구(Tze-chung Li, 1990)에서도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술자료는 정기간행물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최근 발표된 한 연구(최은주, 1999)에서도 국내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정보 교환에 관련된 조사결과가 있었는데,

〈표 5〉 자료유형별의 인용횟수

연도	단행본	학술지	보고서*	내부자료**	신문	학위논문	사전***	세미나	통계자료	법규	전자자료
1995(%)	934	1,132	169	85	27	80	32	26	12	12	0
1996(%)	623	533	49	33	25	16	30	11	25	8	0
1997(%)	804	806	166	16	21	36	45	24	32	0	4
1998(%)	715	880	165	85	14	35	20	25	11	3	4
1999(%)	1,076	1,069	244	75	25	74	45	52	6	25	28
계(%)	4,152	4,420	780	294	102	241	182	128	86	48	36

\* 주로 연구보고서를 의미

\*\* 이 자료에는 백서를 포함

\*\*\* 사전류로서 이에는 편람, 총람 등의 즉답형 자료도 포함

5) 이 연구는 1967-70년까지 수행되어 인류학, 정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연구자 2,60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술정보 교환유형을 조사한 과제연구(Information Requirement of researchers in the Social Science: INFROSS)이다.

그들의 주된 학술정보자료는 학술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연과학 연구자들과 비교한 결과, 핵심 선호자료의 유형은 유사하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월등히 많은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3) 핵심 참고자료의 유형별 국내·외 의존도 <표 6>은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학술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참고하는 자료 중 대표적인 유형별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혹은 국외의 자료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가를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대상이 된 자료유형은 본 연구의 조사에서 각 게재논문의 참고자료 중 활용도 5위까지 집계된 학술지, 단행본, 학위논문, 보고서, 내부자료 등이다.

전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학술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인정되고 있는 학술지와 단행본의 경우, 국내의 행정학 연구자들

은 국내의 자료보다 해외의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각 유형에서는 국외의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적, 지역적으로 제한된 정보를 수록하는 대표적인 자료인 법률자료나 신문자료 및 보고서류들은 국내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유형 중 전형적인 학술자료로 인정되고 있는 학위논문의 경우에도 국내의 논문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논문의 내용에 의한 결과이기 보다 자료의 접근성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참고로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단행본과 학술지 유형에서 전체자료의 43.3%를 차지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인용된 국외 학술지를 언어별로 비교해 보면, 영어자료(209종), 중국어자료(27종), 일어자료(23종), 독일어자료(22

<표 6> 핵심 참고자료의 국내외 활용도 비교

연도	학술지(4,510 회) (43.3%)		단행본(4,152) (38.6%)		보고서(993) (9.3%)		내부자료(292) (2.8%)		학위논문(243) (2.3%)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5	513	619	202	732	136	33	72	13	63	18
(%)	1,131(47.1)		934(38.9)		169(7.0)		85(3.5)		81(3.3)	
1996	225	308	173	450	45	4	32	1	11	5
(%)	533(42.5)		623(49.7)		49(3.9)		33(2.6)		16(1.2)	
1997	244	562	184	620	123	43	11	5	28	8
(%)	808(44.1)		804(43.9)		166(9.1)		16(0.9)		36(1.9)	
1998	326	554	169	546	124	41	68	17	29	6
(%)	880(46.8)		715(38.0)		165(8.7)		85(4.5)		35(1.8)	
1999	458	611	309	767	166	78	67	8	59	15
(%)	1,079(42.3)		1,076(42.2)		244(9.5)		75(2.9)		74(2.9)	
계	1,766	2,644	1,037	3,115	794	199	248	44	191	52
(%)	(39.2)	(40.8)	(22.7)	(77.3)	(79.9)	(20.1)	(84.9)	(15.1)	(78.6)	(21.4)

중), 불어자료(7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전체자료에서 38.6%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그 활용도가 높은 단행본 자료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인용된 경우를 언어별로 그 횟수를 비교해 보면, 영어자료(2,874회), 불어자료(88회), 일어자료(73회), 독일어자료(58회), 중국어자료(22회)의 순이다.

### 3. 2. 4 핵심 학술지의 순위 분석

국내 행정학 분야의 연구논문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의 유형은 학술지로서, 이를 대상으로 핵심학술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술지의 인용문헌 분포상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333편의 논문이

생산되는 데에 인용된 총 빈도수는 10,591 회이며 단 한번이라도 인용된 학술지는 약 250여 종에 달한다. 이 중 5회 이상 인용이 된 학술지는 108종에 이르며, 10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도 전체 학술지의 24%에 해당되는 약 60여 종에 이른다.

<표 7>과 <표 8>은 인용빈도에서 상위에 속하는 국내·외 학술지를 각각 그 순위별로 나타낸 것으로, 국외의 학술지는 상위 20위, 국내의 학술지는 상위 10위까지 포함시켰다. 국내·외 학술지에서 그 순위의 포함범위에 차이를 둔 이유는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학술지는 상·하위의 학술지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여 상·하위 간 학술지의 구별이 뚜

<표 7> 국외 핵심학술지 순위 20

순위	빈도수	학술지명	순위	빈도수	학술지명
1	274	Pub. Adm. Rev.	11	32	Pub. Budget & Finance
2	103	Amr. Politic. Sci. Rev.	12	27	Amr. Jl. of Poli. Sci.
3	64	Acad. of Mana. Rev.	12	27	Pub. Adm.
4	59	Adm. Sci. Q.	14	26	MIS Quarterly
5	49	Harv. Bus. Rev.	15	26	Urban Status
6	41	Jl. of Appl. Psy.	16	25	Jl. of Political. Economy
7	40	Public Choice	17	23	Econometrics
8	37	Policy Jl.	17	23	Jl. of Raw & Economy
9	36	Adm. & Society	19	22	Jl. of MIS
10	33	Management Science	20	20	Amr. Socio. Rev.

<표 8> 국내 핵심학술지 순위 10

순위	빈도수	학술지명	순위	빈도수	학술지명
1	601	한국행정학보	6	39	한국정책학회보
2	93	한국행정연구	7	38	지방행정연구
2	93	행정논총	8	23	국토계획
4	57	한국정치학회보	9	2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5	42	지방자치	10	16	지방재정연구

렇거나 국외의 자료는 각 순위간에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행정학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논문을 생산하기 위해 학술지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며, 그 중 해외 학술지를 국내 학술지보다 더 선호한다. 그리고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해외의 학술지는 선호의 순위간에 큰 격차를 갖지 않는데 비해 국내 학술지는 순위간의 격차가 현저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 학술지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종 수가 많기 때문에 기인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에 포함되는 자료들은 모두 순수 이론적 경향이 짙은 학술지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논문을 생산하기 위해 참고하는 정보자료는 대체로 국내외 모두 실무적 경향을 갖는 전문지보다는 이론적 경향을 갖는 순수 학술지를 결정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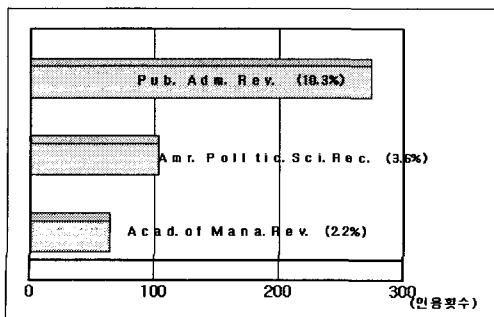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외의 학술지 중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용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최상위 핵심학술지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이다. 본 학술지의 최근 5년 동안 활용된 수준을 보면, 총 274

회의 인용으로써 전체 참고자료의 약 10.3%에 해당된다. 한편 상위 2위의 핵심학술지로 조사된 Administration Political Science Review는 103회에 걸쳐 인용됨으로써 전체 참고자료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 3.6%에 해당되는 활용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1위의 자료가 갖는 점유율은 2위로부터의 도전을 이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크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위 20위 내에 포함된 국외의 학술지를 언어별로 보면 모두가 영어자료이며 그 외 언어로 발행된 학술지는 모두 순위권 밖의 소수 이용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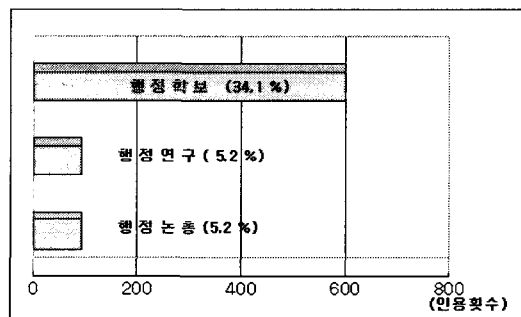
반면,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이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 상위의 핵심학술지는 높은 점유율에 의해 하위와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1위의 핵심학술지로 조사된 「한국행정학보」는 점유율이 34.1% 로써, 5.2%인 2위의 핵심학술지에 비해 약 6.2배를 더 상회하는 점유도를 보인다. 최상위의 학술지가 갖는 이와 같이 뚜렷한 점유도에 비해 국내의 핵심학술지 중 5위 내에 포함된 다른 학술지들을 보면, 그들의 각 순위간 격차는 국외의 학술지에서 보이는 현상과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표 9>과 <표 10>는 국내 및 국외학술지를

<표 9> 국외 핵심학술지의 점유도



<표 10> 국내 핵심학술지의 점유도



각각 상위 3순위까지의 핵심학술지들이 갖는 점유도를 나타낸 것으로 표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2, 3위의 핵심학술지들이 갖는 도전을 또한 참고할 수 있다.

3. 2. 5 행정학 분야 학술자료의 반감기 측정  
정보자료의 이용가치는 출판된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반드시 감소하기 마련이며 이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Burton, Kebler, 1963).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학술정보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감소의 현상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낸 바 있다(Cole, 1963). 즉 이 법칙은 과학문헌의 이용률 감소법칙으로서, 출판후 시간의 경과(t)에 따른 잔여이용가치(y) 간의 관계를  $y = ae^{-t} + be^{-at}$  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문헌의 이용률 감소현상의 또 다른 개념인 반감기개념(Brooks, 1970)에 의해 국내 행정학 관련 학술자료의 감소현상을 조사하였다. 반감기에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반감기는 6-7년, 자연과학 분야는 5-6년으로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학술자료의 반감기는 학문의 특성이나 연구자들의 연구행태 이외의 여러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음으로써 점차 짧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한편 입수조건이 좋아짐으로 인해 최신성이 강한 회의자료, 발표자료, 보고서, 전자자료 등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감소인자의 영향은 점차 커지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학술자료의 반감기 측정을 통해 국

내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는 국내·외별로 얼마간의 이용가치를 갖는가를 발견하게 되며 이로부터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5년간의 「한국행정학보」를 통해 조사된 행정학 분야에서 나타난 학술정보 자료의 반감기는 국내·외 자료간에 매우 상이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즉 국내의 학술자료는 출판된 이후 1년간이 매우 높은 이용률에 의한 최상의 이용가치를 가지며, 5년간의 발행자료를 통해 측정된 평균 반감기는 3.29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의 자료가 갖는 이용감소 현상은 매우 느리게 나타나, 5년간의 평균 반감기는 10.10년이었다. 특히 국외의 자료는 이용감소의 현상곡선이 완만하며 출판된 이후 50년이 경과된 자료도 그 이용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은 응용학문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국내의 자료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 90년대의 연구를 위해서도 80년대 이후의 자료 이용률은 현격히 줄어들며, 조사기간 동안(1995-99년)의 연구 중 50년대 이전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표 11〉은 각 연도별로 국내·외 자료의 이용빈도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연도별 반감기와 아울러 해당 연도에 생산된 연구를 위해서는 어느 연도에 발행된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위해 활용하는 학술정보를 국내의 경우에는 매우 최신의 자료를 선호하는 반면, 국외의 경우에는 최신성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기간 5년동안의 동일한 현상으로, 국내자료의 경우에는 논문을 준비하는 바로 전 해에 출판된 자료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국외자료의 경우에는 최다 이용자료의 출판연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1995년에 발행된 논문을 예로 보면, 논문에 참고된 자료는 1984년에 출판된 자료로서 11년이 경과된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자료의 입수성에 따른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외의 정보자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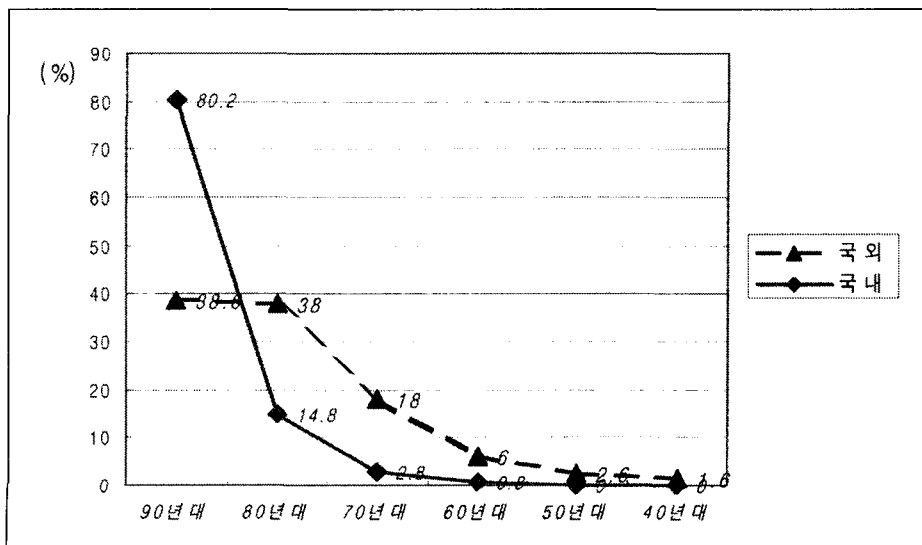
은 출판 후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완만한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전적으로 입수성에 의한 결과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 <표 12>은 각 연대별로 해당 연대에 발행된 자료가 어느 수준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에 참고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는 출판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갔는 이용률의 변화 추이, 즉 이용률의 반감속도를 국내·외 자료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간인 5년간의 현상을 평균으로 측

<표 11> 각 발행연도별 반감기 및 최다이용 출판년 비교

발행연도	반감기		최다 이용 출판연도(전체 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9년	3.22년	9.71년	1998년도(21.5%)	1995년도(6.2%)
1998년	3.26년	10.14년	1997년도(22.5%)	1993년도(7.4%)
1997년	3.67년	10.12년	1996년도(20.7%)	1993년도(5.7%)
1996년	3.28년	9.51년	1995년도(19.6%)	1992년도(8.0%)
1995년	3.03년	11.04년	1994년도(20.1%)	1984년도(6.2%)
평균	3.29년	10.10년	발행 후 1년경과	발행 후 5.8년경과

<표 12> 각 연대별 자료이용 변화 추이 비교



정하였으며 각 연대별의 자료이용 현황은 총 인용문헌 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자료에 대한 이용감소의 속도는 논문을 준비한 연대가 경과하게 되면 급격히 가속되나 국외자료는 그 감속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된다. 더욱이 각 연대별 이용현황에서 1990년대 이전의 연대들은 10년간의 누적이용인 것에 비해 90년대는 평균 6.4년간의 누적이용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90년대의 10년간을 전부 고려한다면 90년대 발행 자료에 대한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조사대상인 5년간에 걸친 「한국행정학보」의 게재논문에 참고된 자료를 매 10년간의 발행 연대에 따라 그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국내 자료는 90년대의 발행자료에 거의 집중된다(80.2%). 그리고 80년대 발행자료에 대한 이용(14.8%)부터는 급격히 감속되어 50년대 이전의 자료는 한 건의 이용도 없다.

반면 국외자료의 이용감속은 90년대 발행자료의 이용률 38.6%에서 80년대 발행자료 이용률 38.0%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이전의 발행자료에 대한 이용률 역시 18%(70년대)→6%(60년대)→0.8%(50년대)→0.6%(40년대)의 수준으로서,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은 국내·외 자료간에 다소 대조적인 양상을 갖고 있어, 결국 자료의 반감기에서도 다른 현상을 보인다. 즉 국내의 자료에 대한 이용경향은 최신의 자료에 이용이 집중됨으로써, 그 반감기가 매우 빠르게 온다. 이에 반해 국외 자료의

이용경향은 발행 후 다소 오래된 자료에 대해서도 그 이용가치가 지속됨으로써, 그 반감기는 10년이 지나기까지 연장되고 있다.

한편, 90년대에 발행되는 논문을 준비하는데에 국내자료에 대해서는 60년대 이전의 자료는 거의 이용하는 예가 없으나 국외자료에 대해서는 꾸준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5년간의 발표논문을 위해 참고한 국외의 자료 중 1930년대, 1920년대에 발행된 자료의 참고횟수가 각각 33회, 9회가 되며 1800년대의 발행자료를 활용한 경우도 18회나 된다.

####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분석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분석에 필요한 주제문헌자료는 행정학 분야의 국내 대표 학술지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행정학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은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5년(1995-99)간 발행된 자료에 게재된 논문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원문헌조사를 위해서는 5년간 발표된 논문 총 334편의 全數調査이며, 인용문헌조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오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논문 1편은 제외시켰다. 조사결과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연구수행의 경향에 있어서는, 국내 행정학 연구의 대부분은 단독연구(77.5%)에 의해



수행되며 연구의 주체자는 주로 연구직에 종사하는 교수(76.45%)와 연구원(19.28%)들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저자가 포함된 교수직에서는 조교수급 이상의 중진교수들이 연구주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 연구주체의 절대 다수(약 96%)가 연구직 중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이들의 대부분(83%)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종학위의 수여는 국내에서보다 국외의 경우가 16% 정도 더 많았다.

3. 행정학의 기사논문 1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균 31건의 참고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들 참고자료 중에는 학술지(43.3%)를 가장 많이 선호하며 그 다음이 단행본(38.6%), 보고서(9.3%) 순이다. 그리고 참고하는 자료의 대부분(82.9%)을 차지하는 학술지와 단행본은 모두 국내의 자료보다 해외발행의 자료를 더 선호하며 특히 영어권자료에 집중된다. 그 이외의 자료들(보고서, 내부자료, 신문, 학위논문 등)은 국내 발행의 자료를 훨씬 더 선호한다. 이와 같은 참고자료 선호현상의 편중성이 곧 한국행정학의 연구에서 늘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야기에 크게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한 결코 국내의 행정학 학문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대가 수행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참고자료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술지의 경우, 국내에서는 「한국행정학보」가, 해외의 학술지로는 *Public Administration Review*가 각각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상위 학술지에서 나타나는 국내·외의 현상은 다소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국내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는 점유도 34.1

로써 2위인 「한국행정연구」에 대해 약 6배가 높은 현격한 차이에 의해 최상위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1위 학술지인 *Public Administration Review*는 점유도 10.3으로, 점유도 3.6을 가지는 2위의 학술지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cord*로부터 위협한 도전을 받고 있어 국내학술지에 비해 그 점유율은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수준에 의해 1위를 유지하고 있음은 다른 학문분야와는 대조적인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5. 과학문헌의 이용을 감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반감기 측정의 결과에서도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과학문헌은 국내·외 자료간에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다. 즉 국내 문헌의 반감기는 3.29년인데 반해 외국문헌의 반감기는 10.10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내 문헌은 발행 후 1년이 경과된 자료가 가장 높은 이용가치를 가지며 5년이 경과하면 그 이용률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역시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외의 자료는 발행 후 50년이 경과된 자료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감소의 현상은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다. 국내의 자료에 대한 이용이 이처럼 최신의 자료에 집중되는 현상은 국내 행정학 연구자들이 주로 참고하게 되는 자료의 유형 중 내부자료와 보고서류는 주로 국내의 자료인 점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6 참조>.

이상과 같이 분석된 결과는 어디까지나 국내 행정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로 인정되고 있

는 1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에 근거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조사대상 자료에 따라 이와는 다른 내용이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행정학의 전문 연구자가 아니므로 계량서지학적 접근으로 가능한 객관적인 외형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

을 뿐 아니라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주제 전문적인 부분은 다룰 수 없는 제한된 연구임을 밝힌다. 아울러 주제 전문적인 내용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하여금 학문적인 동기나 당위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권경득. 1996 여름. "한국 행정학의 연구경향과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기고 논문(1967-1995)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139-154.
- 대세계백과사전. 1986. 권1, 政治 편. 서울: 태극출판사.
- 배순자. 1999. 전주대학교 인정 전국규모 학술지 선정 및 등급화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내 미간행자료.
- 배순자. 1998. "국내 학술연구자들의 국내 학술지 의존도에 대한 계열간 비교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3): 127-142.
- 서은경, 한인구. 1998. "회계학연구의 계량서지적 분석," 「회계학연구」 23(3): 183-208.
- 신무섭. 1997. "「한국행정학보」를 통해 본 韓國 行政學의 研究傾向과 課題," 「전북대 사회과학연구」 제23집: 87-109.
- 이가중, 윤석경. 1996 여름. "학술지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0(2): 97-112.
- 정철현. 1998. 「행정학 원론」. 서울: 법문사.
- 조만형. 1995. "학술정보 활용의 행태와 장애에 관한 실증분석: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1363-1380.
- 최은주. 1997. "自然科學 및 社會科學 研究者들의 情報利用特性 分析," 「정보관리학회지」 14(1): 27-46.
- 최창호. 2000. 「새 행정학개론」. 서울: 삼영사.
- 최희윤. 1987. "주제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정보관리연구」 14(1): 26-59.
- Brooks, B.C. 1970. "Obsolescence of Special Library Periodicals: Sampling Errors and Utility Contour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 21(1): 320-329.
- Burton, R. E. and R. W. Kebler. 1960. "The Half-life of Some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s," *American Document* 11: 18-22.
- Cole, P. E. 1963. "Journal Usage Versus Age of Journal," *Journal of Document* 19: 1- 11.

Egghe, L. 1994. "A Theory of Continuous Rates and Applications to the Theory of Growth and Obsolescence Rat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0(2): 279-292.

LI, Tze-chung. 1990. *Social Science Reference Sources: a Practical Guide*. New York: Greenwood Press.

Waldo, D. 1978. *The Administrative State*. N.Y.: The Ronald Press Company.